



##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 낙관론 확산되며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17 일(수)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웨스턴 얼라이언스뱅크(10.19%)의 예금 증가 보고에 따른 지역은행 우려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 (다우 +1.24%, S&P500 +1.19%, 나스닥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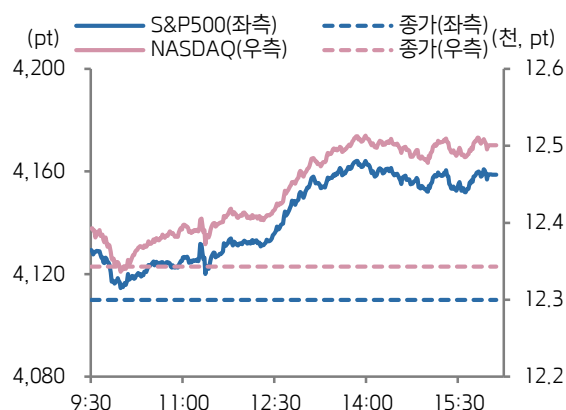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은 예산에 대한 것인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 매카시 의장 역시 이날 "우리가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제외한 미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본회에서 바로 표결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 보일 의원이 심사 배제(Discharge Petition) 청원 서명 절차를 시작할 계획. 심사 배제 청원은 하원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를 통해 특정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과반인 218 명의 서명이 필요.

미국 4 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대비 2.2%(예상 -1.4%, 전월 -4.5%) 기록. 전월 발표된 NAHB 주택시장지수가 작년 7 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50 을 회복한 데 이어 주택시장 반동을 시사. 그러나 건축허가건수는 전월 대비 -1.5%(예상 0.0%, 전월 -3.0%) 감소기록. 30 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3%대까지 내려왔으나, 최근 중소 지역은행들의 연쇄 붕괴에 따른 신용 여건의 긴축이 추가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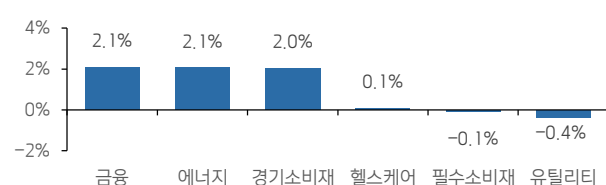
금융(+2.1%), 에너지(+2.1%), 경기소비재(+2%) 업종은 강세, 유틸리티(-0.4%), 필수소비재(-0.1%) 업종은 약세. 타겟(2.58%)은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한 매출과 순이익과 재고 감소를 발표하고 올해 가이드언스를 유지한 영향으로 강세. 테슬라(4.41%)는 주주총회에서 전통 자동차 회사들처럼 적극적 판매 증진을 위해 광고를 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강세. 웨스턴 얼라이언스뱅크(10.19%) 1 분기에 예금이 20 억달러 이상 증가, 현재 예금잔고가 490 억달러 라고 보고한 이후 투자의견이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급등.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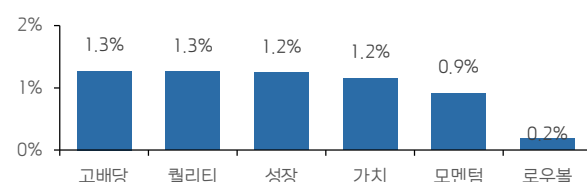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494.66  | +0.58% | USD/KRW   | 1,337.85 | -0.07% |
| 코스피 200                              | 326.61    | +0.4%  | 달러 지수     | 102.85   | +0.28% |
| 코스닥                                  | 834.19    | +2.14% | EUR/USD   | 1.08     | +0.01% |
| 코스닥 150                              | 1,266.71  | +2.73% | USD/CNH   | 7.01     | +0.01% |
| S&P500                               | 4,158.77  | +1.19% | USD/JPY   | 137.61   | -0.05% |
| NASDAQ                               | 12,500.57 | +1.28% | 채권시장      |          |        |
| 다우                                   | 33,420.77 | +1.24% | 국고채 3년    | 3.275    | +3.5bp |
| VIX                                  | 16.87     | -6.23% | 국고채 10년   | 3.320    | +1.8bp |
| 러셀 2000                              | 1,774.50  | +2.21% | 미국 국채 2년  | 4.154    | +7.2bp |
| 필라. 반도체                              | 3,124.68  | +2.49% | 미국 국채 10년 | 3.564    | +3bp   |
| 다우 운송                                | 13,939.39 | +2.16% | 미국 국채 30년 | 3.854    | +0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323.23  | +0.18% | WTI       | 72.83    | +2.78% |
| MSCI 전세계 지수                          | 651.81    | +0.55% | 브렌트유      | 76.96    | +2.74% |
| MSCI DM 지수                           | 2,820.92  | +0.66% | 금         | 2003.7   | -0.42% |
| MSCI EM 지수                           | 975.83    | -0.35% | 은         | 23.75    | +0.06% |
| MSCI 한국 ETF                          | 60.73     | +1.91% | 구리        | 374.3    | +2.42%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        |           |          |        |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br>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2.5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br>2. 엔비디아 등 AI 및 반도체주 강세로 인한 국내 관련주 수급 여건 호전 가능성<br>3. 테슬라 등 전기차주 강세로 인한 국내 2차전지주 투자심리 개선 여부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실적시즌, FOMC, CPI 등 증시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 이벤트들이 종료되거나 다음 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소강 상태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증시의 뉴스 플로우 중심에는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전일 미국 증시 반등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일단 부채한도 협상은 낙관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합의를 통해 미국이 디폴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으며, 매카시 하원의장도 디폴트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평행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들 간에 접점이 마련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

5 월 이후 신규 화재성 재료 부재 등으로 증시 상단이 가로막혀 있으며, CDS 프리미엄도 160bp 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CNN Fear & Greed index 가 이달 내내 Neutral에서 Greed 영역(17 일 61pt 로 Greed 영역 진입)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부채한도 문제가 증시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BofA 가 5 월 시행한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도 71%의 응답자들이 X-date(옐런 재무장관은 6 월 1 일로 제시) 전에 부채한도 증액에 성공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이 지목한 시장의 큰 잠재 위험(테일리스크)에서 부채한도(응답률 8%)가 경기침체(33%), 인플레이션 및 긴축(29%), 지정학적긴장(15%), 시스템위기(12%)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자 출국했기 때문에, X-date 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프로그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주요 지출을 놓고 양당 간 미세 의견 충돌은 부각될 소지가 있긴 함. 이로 인해 “부채한도 협상 기대 → 협상 불확실성 재확대 → 협상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순환고리가 발생하면서 뉴스플로우상 디폴트 재앙, 정부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 등과 같은 노이즈가 유발될 수 있겠지만,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소비 경기 부진, 부채한도 협상 난항 소식 등 미국발 부담요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매수 속 인터넷,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2.1%).

금일에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미국 지역은행들의뱅크런 불안 완화 등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가 일정부분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3%)의 서비스나우(+5.3%)와 AI 계약 체결, PC 수요 정상화 전망에 따른 AMD(+2.2%) 실적 호전 기대 등으로 AI 관련주 및 반도체(필라델피아 반도체 +2.5%)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최근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국내 AI, 반도체주들에게 한층 더 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판단. 또 테슬라(+4.4%)가 올해 안에 약 25~40 만대의 사이버트럭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에 니콜라(+4.8%), 루시드(+3.6%) 등 전기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에서도 성장주 우위 국면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사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인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국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인의 종류, 종류, 매수의 파악과 방법 등 관련 의견장은 정보에 투자가자의 신의와 책임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한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을 자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제, 전파, 판매, 전출,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관리 목적하는 경우에는 본 자료의 판매에 의하여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